울산어문논집 제13·14합집 (1999.11.30) pp.31~54.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생성음운론 이전의 자음동화 연구에 대하여

이 진 호*

1.

국어의 자음동화[1]는 국어 음운론 연구가 시작된 20세기 초기에 이미 그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김두봉(1916:45~50)에서 자음동화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 일부분은 현재의 자음동화 기술 방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온 몇몇 논의들도 자음동화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이 사실이다. 자음동화를 제외한 다른 음운현상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가 대부분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음동화는 꽤 이른 시기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자음동화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자음동화 현상이 여러 음운 현상 중 비교적 쉽게 인식된다는 점,

*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울산대 강사.

1) 여기서 지칭하는 자음동화란 엄밀하게 말해서 '자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를 가리킨다. 모음의 자질에 자음이 동화되는 자음동화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언차와 무관하게 한반도 제방언권에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형태론적 제약과 같은 비음운론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이다.

생성음운론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자음동화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음운현상의 기술 단위가 음소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음소 차원에서 자음동화를 기술하면 자음동화는 하나의 음소가 다른 음소와 비슷해지는 것 이상의 해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화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음소보다 작은 단위인 변별적 자질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자음동화와 관련된 다른 음운현상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음동화 연구의 한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한계들은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더불어 극복되기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음동화의 연구는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더불어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국어 자음동화 연구의 흐름을 조망해 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20세기 전반기의 자음동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생성음운론의 도입은 자음동화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생성음운론의 도입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자음동화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기에 나온 자음동화 연구는 주시경(1906)에서 허 웅(1965)까지로 볼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 자음동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는 국어의 자음동화에 속하는 구체적 현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연구되었는지에 대해 알아 본다. 3장에서는 자음동화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2.

국어의 자음동화는 크게 조음위치 동화와 조음방법 동화로 나눌 수 있다. 2장에서는 조음위치 동화와 조음방법 동화에 대한 인식과 정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조음위치 동화에 대한 연구

조음위치 동화에 대한 언급은 주시경(1906)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시경(1906:63~4)에는 'ㅁ이 ㄱ 위에서 ㅇ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조음위치 동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조음위치 동화의 피동화주에는 양순음이나 치조음 계열의 비음, 폐쇄음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시경(1906:63~4)에서 피동화주를 ㅁ에만 국한시킨 것은 현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포착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후에 나온 주시경(1914)에서는 '삼개→상개, 손가락→송가락, 샷갓→삭갓, 팟밥→팝밥'의 예를 위치동화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상에 대한 기술을 더 정밀화한다.

주시경(1906:63~4)에서는 위치동화에 대해 변한 대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본음대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가령 '감긔(感氣)'나 '셤기다(事)'는 위치동화가 적용된 '강긔, 셩기다'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본음대로 '감긔, 셤기다'와 같이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치동화 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 것으로 이후의 위치동화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시경(1906)에서 언급된 위치동화는 그 뒤 한동안 연구의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자음동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김두봉(1916)이나 小倉進平(1923)에서는 위치동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小倉進平(1923)의 경우 일본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일본어 음운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음위치 동화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2] 그러나 주시경의 제자인 김두봉이 위치동화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의 스승이 계속 언급하고 있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김두봉은 조음위치 동화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 매 · 김진호(1925:25)에서 다시 위치동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ㅁ이 ㄱ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밤값→방값, 남극→낭극'의 예만 들고 있어 주시경(1906)에 비해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고 하겠다. 주시경(1914)에서 언급된 위치동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논의는 최현배(1929)에 와서 이루어진다. 최현배(1929:89~90)에서는 단순히 위치동화의 예를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동화의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주시경(1906, 1914)에서는 위치동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상이 동화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다.[3] 그러나 최현배(1929)에서는 이 현상이 동화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현배(1929)는 위치동화를 자음동화의 하나로 인정한 최초의 논의로 평가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현배(1929:89~90)에서 위치동화를 언급할 때에 비음이 후행하는 자음에 위치동화되는 경우와 장애음이 후행하는 자음에 위치동화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음이 동화되는 경우,

2) 小倉進平(1923:147~8)에서는 일본의 가타카나(片仮名) 중 비음을 나타내는 'ン'의 조음위치가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위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조음위치 동화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3) 주시경이 자음동화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은 3.1에서 후술된다.

피동화주는 'ㅁ, ㄴ'이고 동화주는 'ㄱ, ㅂ, ㅁ'이 되는데 이 때의 동화는 비음인 'ㅁ, ㄴ'이 뒤에 오는 자음의 자리로 옮겨서 발음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음의 동화는 선행하는 자음이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위치만 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장애음이 동화되는 경우에는 피동화주가 'ㅅ, ㅈ, ㄷ, ㅂ'이 되고 동화주가 'ㄱ, ㅂ'이 되는데 이 때의 동화는 장애음이 후행하는 'ㄱ, ㅂ'과 완전히 같아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음이 동화되는 것은 조음위치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음소 전체가 후행하는 자음과 같아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피동화주의 종류나 동화주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음위치가 같아지면 그 현상은 모두 위치동화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동화주와 동화주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음운 현상을 구분한 것은 이 당시 음운 현상의 기술 단위가 음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음소의 차원에서 본다면 비음의 위치동화는 'ㅁ, ㄴ'이 후행하는 음, 즉 'ㄱ, ㅂ, ㄷ'과 조음위치만 같아졌으므로 부분동화이며[4] 장애음의 위치동화는 'ㅅ, ㅈ, ㄷ, ㅂ'이 후행하는 음, 즉 'ㄱ, ㅂ'과 같은 음소가 되었으므로 완전동화이다. 따라서 두 현상은 최현배(1929)의 논의대로 구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운 현상을 음소보다 더 작은 단위인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두 현상은 모두 조음위치와 관련된 자질이 변화한 것이므로 조음위치 동화라는 단일한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동화를 음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상 위와 같은 기술 태도는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동화를 음소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희승(1955:153~4), 허 웅(1958:85~6, 1965:251)에서는 비음의 위치동화와 장애음의 위치동화를 여전히 구분하고 있다. 만약 변별적 자질로써 위치동화를 기술한다면 비음의 위치동화와 폐쇄음의 위치동화는 하나의 현상으로 기술될 것이다. 두 종류의 위치동화를 동일한 현상으로 다룬 최초의 논의는 분명치 않

4) ㄴ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바뀌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완전동화인데도 불구하고 최현배(1929:89~90)에서는 이것을 부분동화의 부류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다만 비교적 이른 시기의 논의로 Kim(1973:275)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Kim(1973)에서 채택한 음운 현상의 기술 단위가 변별적 자질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허 웅(1965:251)에는 조음위치 동화와 자음의 강도를 관련시킨 부분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허 웅(1965:251)에서는 ㄷ의 경우 동화 작용을 입기만 하고 동화를 시키지는 못하며 ㄱ은 동화를 시키기만 할 뿐, 동화 작용을 입지는 않으며 ㅂ은 동화 작용을 입기도 하고 동화를 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들어 ㄱ이 가장 강한 음이고 ㄷ이 가장 약한 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언급한 것으로 이후 논의의 초석이 된다.

조음위치 동화에 국한시켜 볼 때 20세기 전반기 연구에서 가장 으뜸은 최현배(1929)라고 단언할 수 있다. 주시경에서 처음 언급된 조음위치 동화는 최현배(1929)에서 훌륭히 설명되었다. 다만 동화의 기술 단위와 관련된 한계 때문에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최현배(1929)의 뒤를 이은 허 웅(1965:251)은 위치동화에서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음방법 동화에 대한 연구

2.2.1. 비음화에 대한 연구

주시경(1906:63~64)은 비음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동화주와 피동화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음화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음화를 ㄱ이 'ㄴ, ㄹ, ㅁ' 앞에서 동화되는 경우, ㅂ이 'ㄴ, ㄹ, ㅁ' 앞에서 동화되는 경우, 'ㄷ, ㅅ, ㅌ, ㅈ, ㅊ'이 'ㄴ, ㄹ, ㅁ' 앞에서 동화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음화의 적용 환경에 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백리, 독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ㄹ 앞에 위치한 폐쇄음도 비음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ㄴ, ㅁ' 앞에서의 비음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ㄹ 앞의 폐쇄음은 곧바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폐쇄음 뒤에 위치한 ㄹ이 먼저 ㄴ으로 바뀐 뒤에 이 ㄴ 앞에서 폐쇄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폐쇄음이 ㄹ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ㄹ이 비음인 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표면적인 음운현상의 기술에 충실했던 주시경이 비음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음화의 입력이 되는 음을 양순음과 연구개음의 경우에는 'ㅂ, ㄱ'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외의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경우에는 'ㄷ, ㅅ, ㅌ, ㅈ, ㅊ'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의 경우, 'ㅍ, ㅋ, ㄲ' 등과 같이 음절말에서 중화되는 음들은 피동화주에서 제외되었음에 비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의 경우에는 'ㅅ, ㅌ, ㅈ, ㅊ'과 같이 음절말에서 중화되는 음들도 피동화주에 포함되어 있다. 비음화의 적용에 앞서 음절말 중화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있어 주시경(1906)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그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두봉(1916:45~8)에서는 비음화에 대해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설명을 하고 있다. 김두봉(1916)의 설명은 현재의 비음화 기술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김두봉(1916:45~8)의 설명은 주시경(1906)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세 가지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비음화의 적용 환경에서 ㄹ이 제외되고 대신 ㅇ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ㄹ은 비음화의 피동화주로 작용할 수 없다. ㄹ 앞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표면적인 관찰의 결과이다. 또한 ㅇ은 비음이기는 하지만 비음화의 환경으로는 결코 작용할 수 없다. 음절초에 ㅇ이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시경

(1906:63~4)에서 ㅇ을 비음화의 적용 환경에서 제외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봉은 ㅇ을 비음화의 환경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ㄴ, ㅁ, ㅇ'이 비음이라는 자연부류를 이루며 이 자연부류가 비음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김두봉은 비음화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둘째, 김두봉(1916:45~50)에서는 비음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콧소리의 유무가 비음화 현상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음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라고 하겠다. 김두봉이 비음화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음음성학적인 지식을 상당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두봉(1916)에서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개별 음소들의 조음음성학적 특징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비음화의 피동화주를 일정하게 설정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시경(1906:63~4)에서는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비음화의 피동화주 종류가 달랐다. 그러나 김두봉(1916:44~7)에서는 비음화의 피동화주에 음절말 중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ㄱ, ㄷ, ㅂ'만 포함시키고 있다. 주시경(1906:63)에서 비음화의 피동화주로 설정된 'ㅅ, ㅌ, ㅈ, ㅊ'은 김두봉의 체계에서는 비음 앞에서 먼저 ㄷ으로 중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송철의(1990:22)에서 지적했듯이 김두봉은 음절말 중화의 적용을 받는 'ㅅ, ㅈ' 등은 비음 앞에서 곧바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음절말 중화의 적용을 받은 뒤 비음화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5]

김두봉(1916)의 논의는 비음화의 실체를 거의 완전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연구에서 비음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주시경(1906)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논의들이

5) 비음화의 적용에 앞서 음절말 중화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 이후에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한다(송철의 1990:30).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김두봉의 논의를 따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많은 논의들은 여전히 주시경(1906)의 설명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국어 연구에 있어 주시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잘 말해 준다.

최현배(1929)는 주시경의 설명을 따르면서도 비음화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는 고심의 흔적을 잘 보여 준다. 최현배(1929:83~5)에서는 비음화의 환경으로 'ㄴ, ㅁ, ㅇ, ㄹ'을 설정하고 있다. ㄹ을 환경에 포함시킨 것은 주시경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ㅇ을 환경에 더 넣은 것을 보면 주시경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6] 최현배(1929:84)에서는 비음화의 적용이 콧소리의 유무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 뒤, ㄹ은 비록 콧소리가 없지만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므로 결국은 똑같다는 풀이를 덧붙이고 있다. ㄹ 앞에서 비음화가 적용되는 이유가 ㄹ이 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면 ㄹ을 비음화의 적용 환경에서 제외할 수도 있었지만 주시경의 영향으로 ㄹ을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뒤로 이희승(1955), 허 웅(1958)의 논의를 거치면서 ㄹ은 비음화의 환경에서 제외되었고 그러한 기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비음화 연구는 주시경의 인식을 바탕으로 김두봉이 완성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음화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국어 음운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6) 최현배(1929)에서는 ㅇ[ŋ]이 음절 초성으로 쓰인다고 판단해서 ㅇ을 비음화의 환경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1929:84)에서는 '오적어(烏賊魚)→오정어'를 ㅇ에 의한 ㄱ의 비음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ㅇ이 음절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ㅇ을 비음화의 환경에 포함시켰던 김두봉(1916)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ㅇ이 음절 초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미 강 매·김진호(192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강 매·김진호(1925:23)에서는 ㅇ에 의한 비음화의 예로 '백어→뱅어'를 들고 있다. 이상의 두 논의에서 음절초에 ㅇ이 오는 예로 들고 있는 '魚'는 지금은 초성이 없지만 중세국어 당시에 ㅇ[ŋ]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2.2.2. 유음화에 대한 연구

유음화에 대한 연구는 주시경(1906:63)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다. 주시경(1906:63)에서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변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유음화를 거울영상규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김완진(1972ㄱ)의 논의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두봉(1916:46)에서는 유음화의 원인을 ㄹ이 콧소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김두봉(1916)이 비음화에 대해서는 동화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유음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유음화의 원인은 ㄹ이 비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화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현배(1929:87~8)에서는 유음화의 원인이 단순히 콧소리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ㄴ이 ㄹ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즉 콧소리의 유무는 ㄴ이 ㄹ에 동화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최현배(1929)에서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 일단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최현배(1929:88)에서는 ㄴㄹ 연쇄의 경우에는 유음화가 적용되는 대신 ㄹ이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천량'이 '천냥'으로 되는 것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ㄴㄹ 연쇄가 일률적으로 유음화의 적용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인데 '음운론'의 음성형으로 '음운논~음울론'이 공존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된다.

이희승(1955:149)에서는 유음화를 상호동화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음화를 상호동화로 인식하는 근거는 유음화의 결과인 'ㄹㄹ'이 설측음 'l'을 나타내기 때문이다.[7] 즉, 설측음이 아닌 ㄹ[8]과 ㄴ이 서로 만나서 설측음(ㄹㄹ)이라는 제 삼의 음이 되었으므로 상호동화가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9] 이 설명이 유효하려면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ㄹㄹ'은 ㄹ이 두 개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측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어에서 ㄹ은 유음 중에서 비설측음을 나타내고 'ㄹㄹ'은 유음 중에서 설측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희승(1955:107~8)의 설명은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시경(1906)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1906:64)에서는 ㄹ이 종성에 오면 그 음이 쌍 'ㄹㄹ'과 같다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서 쌍 'ㄹㄹ'이란 '걸레, 벌레' 등에서 'ㄹㄹ'이 겹쳐 표기되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음성학적으로는 'll'로 전사된다. 그러나 주시경은 이 'ㄹㄹ'을 하나의 설측음 'l'로 파악하였다. 결국 주시경은 ㄹ은 비설측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ㄹㄹ'은 설측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국어에서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 한 음소의 이음으로 존재하는 설측음과 비설측음을 표기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ㄹ과 어중의 'ㄹㄹ'을 구별하고 어중의 'ㄹㄹ'을 하나의 설측음 'l'로 파악하는 태도는 김두봉(1922:46), 최현배(1929:77, 1937:64~8)로 계속 이어진다. 특히 최현배(1937:48~52)에서는 혀를 굴려서 흘려 내는 소리가 ㄹ이고 'ㄹㄹ'은 ㄹ의 된소리라고 하여 이 둘을 구별하고 있다.[10]

이희승(1955:105~6)에서도 이전부터 내려오던 기술 방법을 받아들여서

---

7) 일반적으로 ㄹㄹ은 두 개의 설측음 'll'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ㄹㄹ을 하나의 설측음 'l'로 파악한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8) 이희승(1955:105~6)에서는 ㄹ은 비설측음을 나타내고 'ㄹㄹ'은 설측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 이희승(1955)에서는 두 음소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제 삼의 음소가 되는 것을 상호동화로 보고 있다. 이처럼 축약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을 상호동화로 파악하는 견해는 小倉進平(1923:164~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小倉進平(1923:165)에서는 중세국어 하향이중모음 'ㅐ, ㅔ' 등이 단모음으로 바뀐 현상들을 상호동화로 파악하고 있다.

10) 'ㄹㄹ'을 하나의 된소리로 처리하고 있는 태도에서 'ㄹㄹ'을 하나의 음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ㄹ은 비설측음인 전동음으로 파악하고 'ㄹㄹ'이 설측음 'l'을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음화가 상호동화로 분류될 수 있다. 원래 비설측음인 ㄹ과 비음인 ㄴ이 만나서 유음화가 적용되면 'ㄹㄹ'이 되는데 동화의 결과인 'ㄹㄹ'은 설측음 'l'을 나타낸다. 이희승(1955)에서는 두 개의 음소가 만나서 성질이 비슷한 제 삼의 음소가 되는 것이 상호동화에 속하므로 유음화는 상호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더 이상 계승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동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희승(1955:149, 162)에서는 두 음소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제 삼의 음소가 되는 것을 상호동화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이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축약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ㄴ과 ㄹ이 만나서 일어나는 유음화는 ㄴ이 일방적으로 ㄹ에 동화된 것일 뿐 ㄹ은 ㄴ의 어떤 특징에도 동화된 것이 아니므로 ㄴ과 ㄹ이 상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상호동화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두 음소가 서로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유음화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한편, 생성음운론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는 ㄴ이 ㄹ에 동화되는 유음화 현상을 '유음화'라는 용어로 지칭하지 않았다. 이희승(1955) 이전의 논의들은 단순히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희승(1955:149)는 '측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희승(1955:149)에서 ㄴㄹ 연쇄의 변화 결과인 ㄹㄹ을 하나의 설측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 용어는 그 이후 '설측음화'로 바뀌어 오랫동안 학교문법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설측음(또는 측음)은 음성학적인 차원의 용어이므로 ㄴ이 ㄹ에 동화되는 음운론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유음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유음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병근(1977)에서부터 일반화된다.

유음화를 지칭하는 용어의 사용은 유음화를 영어로 나타낼 때에도 문제

가 된다. 유음화를 영어로 지칭할 때에는 주로 'lateralization'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 사용된 'lateral'이라는 용어 역시 음성학적인 용어이므로 'lateralization'은 국어의 유음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국어 유음화를 'lateralization'로 지칭한 것은 Martin(1954:5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행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11]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 유음화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주시경(1906)에서 유음화를 언급하고 최현배(1929)에서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유음화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20세기 전반기 유음화 연구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대상을 합성어나 한자어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시경(1906) 이래 대부분의 논의가 합성어나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유음화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음화는 용언의 활용에서도 나타난다. ㄹ을 선행 자음으로 하는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유음화가 일어난다. 활용에서의 유음화를 미처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20세기 전반기의 유음화 연구는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2장에서는 자음동화의 종류에 따라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자음동화와 관련된 몇몇 문제들이 각각의 연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자음동화와 관련된 문제로는 자음동화의 인식, 자음동화의 범위, 자음동화의 분류를 들 수 있다.

---

11) Martin(1954)에서 유음화를 'lateralization'이라고 한 것은 Martin이 국어의 유음 ㄹ을 설측음 'l'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Martin(1952)를 참조할 수 있다.

3.1. 자음동화의 인식

20세기 자음동화 연구의 시발점이 주시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시경이 자음동화를 동화로서 인식하고 현상을 기술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비음화의 규칙 기술을 보면 ㄹ이 비음화의 동화주로 포함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조치는 표면적인 관찰의 결과일 뿐이다. ㄹ은 비음화의 동화주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주시경이 비음화를 동화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ㄹ을 비음화의 동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송철의(1990:2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주시경은 자음동화에 속하는 음운 현상을 음절말 중화나 경음화와 구별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 현상들을 모두 '자음접변'이라는 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만약 자음동화를 따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음절말 중화와 경음화는 구별되어 기술되었을 것이다. 결국 주시경은 자음동화를 따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소리가 변하는 '자음접변'의 차원에서 음운현상들을 기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시경은 자음동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동화 현상을 지적하는 데서 그칠 뿐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었다.

김두봉(1916)은 동화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동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음절초에 올 수 없는 ㅇ을 비음화의 동화주에 포함시켜서 비음화의 동화주를 'ㄴ, ㅁ, ㅇ'의 자연부류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해 인접음의 영향을 고려한 음성학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두봉이 자음동화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다만 자음동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개별적인 현상의 설명에만 반영되어 있을 뿐 자음동화에 속하는 음운현상들을 따로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들은 여전히 음절말 중화 등과 같이 자음동화가

아닌 음운현상과 함께 '닿소리의 잇어바꿈(子音連變)'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어의 자음동화 현상에 대해 동화라는 명칭을 붙여서 기술한 것은 小倉進平(1923)에 와서이다. 小倉進平(1923:132)에서는 자음동화의 개념을 밝힌 뒤, 국어의 자음동화로 비음화, 유음화 등을 들고 있다. 국내 학자의 연구에서 동화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보이는 것은 최현배(1929)이다. 최현배(1929:79)는 '소리의 닮음'에 대해 '소리와 소리가 서로 이어날 때 한 소리가 다른 소리를 닮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동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小倉進平(1923)과 최현배(1929)를 통해 국어의 자음동화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두 논의의 자음동화 항목에는 동화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전 논의들이 자음접변 항목에서 다루던 현상들을 여전히 자음동화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최현배(1929:83)에서는 자음동화를 자음접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언급마저 보인다. 송철의(1990:23)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음동화'와 '자음접변'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최현배(1929)에서 시작된 듯하다.

자음접변은 자음동화와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배(1929)에서 비롯된 이러한 태도는 이후의 논의에 그대로 이어진다. 자음접변과 자음동화가 이처럼 동일시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주시경이 자음접변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던 현상들 중 일부, 가령 비음화, 유음화, 위치동화 등은 이후의 연구들에 의해 동화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비음화, 유음화 등을 제외한 다른 현상들은 동화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화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이상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들과 아직 성격이 규명되지 못한 기타의 음운 현상을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여러 현상들을 모두 같은 항목에서 기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전에 자음접변에 포함되어 있던 현상들이 자음동화에도 속하는 것으로 이

해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자음동화의 개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과 그렇지 않은 현상 간의 구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음동화의 범주에 드는 음운 현상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와서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에서는 자음동화의 범위가 어떻게 한정되어 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2. 자음동화의 범위

주시경이나 김두봉의 연구에서는 자음동화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음접변' 또는 '자음연변'에 모두 묶어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과 그렇지 않은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주시경(1906:64~7)에서는 음절말 중화, 경음화, 'ㄴ, ㅎ'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하 ㄹ의 비음화), 유기음화가 자음접변 항목에서 자음동화에 속하는 음운현상들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김두봉(1916:47~8)에서는 음절말 중화, ㄹ의 비음화가 자음동화와 구별되지 않은 채 '자음연변' 항목에서 함께 설명되고 있다. 이후에도 자음동화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현상은 음절말 중화와 ㄹ의 비음화이다.

최현배(1929:89)에서는 '음절말 중화, ㄹ의 비음화' 이외에 유성음화 현상이 새로이 자음동화 현상에 포함된다. 최현배(1929:89)에서는 '감기'의 이음절 초성 ㄱ이 그 앞에 있는 유성음 ㅁ에 동화되어 유성음 ㄱ[g]로 나는 현상을 자음동화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폐쇄음의 유성음화는 국어에서 음성적인 과정이므로 비음화, 유음화와 같은 음운론적인 과정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ㄱ의 유성음화를 일으킨 것이 선행하는 ㅁ의

유성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어에서 폐쇄음의 유성음화는 폐쇄음이 유성음 사이에 놓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최현배(1929)에서 유성음화를 자음동화로 본 것은 小倉進平(1923)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小倉進平(1923:161)에서는 유성자음 뒤에 무성자음이 올 때 유성음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유성음화를 국어의 순행동화 속에 분류하고 있다. 국어의 음소는 유무성의 대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小倉進平(1923:161)이 국어의 유성음화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小倉進平(1923)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무성의 차이에 따른 음소의 대립이 존재하는 일본어에서는 유성음화가 중요한 음운 현상의 하나이다. 따라서 小倉進平(1923)에서는 일본어의 유성음화를 동화의 종류로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무성의 대립이 없는 국어의 경우에도 유성음화를 동일한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에 있다. 국어에는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성음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무성의 대립이 있는 일본어의 유성음화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小倉進平(1923)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최현배(1929)에서도 유성음화를 자음동화의 일부로 다루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12]

음절말 중화, 그의 비음화, 유성음화 현상 중 음절말 중화는 이희승(1955)에 와서 자음동화로부터 제외된다. 이희승(1955:185~6)에서는 기존의 음절말 중화를 받침 법칙이라고 하여 동화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음화를 여전히 자음동화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음화 현상[13]을 자음동화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허 웅(1965:247~52)에서는 유성음화가

12) 유성음화는 유성성 여부를 음소적 차이로 인식하는 일본인이 그렇지 못한 한국인보다 훨씬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어의 유성음화를 자음동화의 일부로 다루는 태도는 小倉進平(1923)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3) 이희승(1955:151)에서는 경음화를 농음화로 지칭하고 있다.

자음동화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이희승(1955)에서 자음동화의 일부로 다루던 경음화도 자음동화 항목이 아닌 이화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ㄹ의 비음화는 자음동화 항목에서 설명한다. 음절말 중화나 유성음화, 경음화 등이 논의를 거치면서 자음동화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음에 비해 ㄹ의 비음화는 여전히 자음동화 항목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14]

자음동화에 대한 인식이 빨랐음에 비해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들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 시기가 늦었던 것은 음절말 중화, 경음화 등과 같이 자음동화로 볼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늦었기 때문이다. 음절말 중화나 경음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자음동화의 범위는 분명하게 한정할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자음동화의 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는 3.3에서 다루기로 한다.

3.3. 자음동화의 분류

국어의 자음동화를 몇몇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은 小倉進平(1923)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小倉進平(1923:146~153)에서는 동화 현상을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를 나누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 '전부동화(全部同化)'와 '일부동화(一部同化)'를 나누었다.[15] 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 중 '상호동화'에는 자음동화의 예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小倉進平(1923)의 분류 방식은 그 이후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된다.

최현배(1929:79~91)에서는 동화를 홀소리의 닮음과 닿소리의 닮음으로

14) ㄹ이 'ㄹ, ㄴ, ㅎ'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음절 경계와 관련시키는 논의, ㄹ의 양음절성과 관련시키는 논의 등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 小倉進平(1923)의 분류는 서구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누었다. 홀소리의 닮음은 다시 홀소리끼리의 닮음, 닿소리에 의한 홀소리의 닮음으로 나누고 닿소리의 닮음은 닿소리끼리의 닮음과 홀소리에 의한 닿소리의 닮음으로 나누었다. 이 중 자음동화는 닿소리끼리의 닮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자음동화를 더이상 세분하지는 않고 있다.

최현배(1937)은 최현배(1929)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화의 분류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내리닮음(순행동화)와 치닮음(역행동화), 서로닮음(상호동화)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2.1에서 지적했듯이 최현배(1937)에서는 조음위치 동화를 피동화주의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피동화주가 비음일 때와 피동화주가 장애음일 때를 구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전적으로 동화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동화주가 비음인 경우에는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만 닮지만 피동화주가 장애음일 때에는 후행 자음에 완전히 동화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현배 1929:89~90, 1937:117~8). 그러나 동화의 정도에 따른 구분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최현배(1937)에서는 동화의 분류를 최현배(1929)보다 자세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류를 중시한 것 같지는 않다. 자음동화나 모음동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동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음운현상들을 동화의 종류에 따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은 데서 그치고 있다.

최현배(1937:102)에서는 상호동화로 자음동화의 예를 들고 있다. 小倉進平(1923)에서 상호동화의 예로 자음동화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자음동화를 상호동화의 예로 든 것은 최현배(1937)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상호동화의 예로 든 것이 흥미롭다. 최현배(1937:102)에서는 '감기'가 '강기'로 되는 것을 상호동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감기'가 '강기'가 되는 것은 표면상 위치동화의 예이므로 '역행동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호동화로 처리되었다. '감기'가 '강기'가 되는 것을 상호동화로 처리한 것은 유성음화를 동화로 인정하고 있는 최현배(1937)의 태도 때문이다. 최

현배(1937:117)에서는 '감기'의 이음절에 놓인 ㄱ은 ㅁ 뒤에서 유성음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으므로 '감기'가 '강기'가 되는 것은 위치동화와 유성성 동화가 모두 적용된 상호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16] 음운론적 과정과 음성적 과정이 대등하게 취급되고 있는 이 설명이야말로 음운 과정과 음성 과정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희승(1955:160~9)에서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동화를 분류하고 있다. 자음동화의 분류와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서 가장 세밀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를 나누고 동화 정도에 따라 전부동화(완전동화), 일부동화(부분동화)를 나눈다. 동화의 위치에 따라 직접동화, 간접동화를 구분하고 있으며 성능에 따라 절대동화와 상대동화를 나누었다. 절대동화와 상대동화는 음운 현상의 수의성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동화의 분량에 단일동화, 이중동화, 삼중동화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분류는 동화가 몇 종류나 일어났는가에 따른 것이다. 동화가 한번만 일어났으면 단일동화가 되지만 '먹이>멕이'와 같이 이-역행동화와 ㄱ의 유성음화가 일어났으면 이중동화가 된다. 자음동화에 속하는 현상들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허 웅(1965:259~60)에서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자음동화를 분류하고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중동화(二重同化)를 나누었는데 '이중동화'가 새로 설정되어 있다. 이중동화란 가운데 소리가 앞뒤의 소리를 동시에 닮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ㅂ, ㄷ, ㅅ-변칙동사의 어간말음이 모음 사이에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영향을 주고 받는 소리들의 거리에 따라 인접동화와 간격동화를 나누었으며 동화의 범위에 따라 완전동화와 부분동화를 나누었다.

16)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小倉進平(1923)에서 상호동화의 예로 자음동화를 들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小倉進平(1923)에서는 자음의 위치동화가 동화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감기→강기'와 같은 예가 상호동화로 처리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그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논의들에서 행한 자음동화의 분류 중에서 동화의 정도 또는 범위에 따라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를 나눈 것은 동화를 음소 차원에서 기술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동화를 자질 차원에서 기술하게 되면 한 자질이 다른 자질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일 뿐, 자질의 일부분에 동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생성음운론의 도입 이후에 자질이 음운 기술의 단위가 된 이후에는 완전동화와 부분동화의 구별이 없어진다.

한편 자음동화의 분류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은 상호동화가 아닌가 한다. 연구자들에 따라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기→강기'를 상호동화로 본 것은 음성 과정과 음운 과정을 구별하지 않고 대등한 것으로 다룸으로써 나오게 되었다. 유음화를 상호동화로 본 것은 상호동화에 대한 정의 및 어중 'ㄹㄹ'에 대한 해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어떤 현상을 동화로 볼 것인가 동화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있어서의 태도 차이 때문에 상호동화의 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음동화 중에서 '독립, 십리'와 같은 예들이 상호동화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희승(1955)에서는 '독립, 십리'와 같은 유형을 상호동화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ㄹ의 비음화 현상을 동화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17] 그러나 허 웅(1965:260)에서는 '독립, 십리' 유형을 상호동화로 처리하고 있다. 허 웅(1965:248~9)에서는 ㄹ의 비음화 현상을 동화 항목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독립, 십리'와 같은 유형이 상호동화가 될 수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은 ㄹ의 비음화 현상이 동화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ㄹ의 비음화가 동화임이 밝혀져야만 '독립, 십리' 유형이 상호동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18]

---

17) Martin(1954:52)도 ㄹ의 비음화가 일반적인 자음동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18) 각주 14)에서 지적했듯이 ㄹ의 비음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아

4.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에 자음동화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주제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이전 논의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음동화 연구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십 년 전에 행해진 연구의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래 이론에 크게 의지하지 않은 채 자생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당시의 연구는 높이 평가해야 할 점들이 많다.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자음동화 연구는 생성음운론의 도입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기존의 연구가 확고히 그 터전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20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성과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생성음운론의 도입은 자칫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20세기 국어 자음동화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론의 수용에 앞서 음운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음성학적 설명에 기대어 볼 때 ㄹ의 비음화를 동화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ㄹ의 비음화는 비음 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ㄱ, ㅂ, ㄷ과 같이 구강음 뒤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고논저

강 매 · 김진호(1925),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역대한국문법대계 1:31, 탑출판사.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국어학회.

고영근(1991), "외솔의 초기 음성 · 문자이론의 한 모습", 동방학지 71 · 72, 연세대 국학연구원.

김두봉(1916), 조선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1-22, 탑출판사.

_____(1922), 깁더조선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1-23, 탑출판사.

김완진(1972ㄱ),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_____(1972ㄴ), "음운론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58 · 60, 국어국문학회.

송 민(1992), "전통, 구조음운론", 국어학연구백년사(I), 일조각.

송철의(1990), "자음동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1995), "광복 50년의 국어 음운론", 광복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 광복50주년 기념 전국국학자대회 논문집.

이기문(1981), "한힌샘의 언어 및 문자이론", 어학연구 17-2, 서울대 어학연구소.

이병근(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_____(1980), "'말의 소리'에서 '조선말본'으로",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_____(1982), "음운론 연구 30년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주시경(1906), 대한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7, 탑출판사.

_____(1914), 말의소리, 역대한국문법대계 1-13, 탑출판사.

최명옥(1989), "구미 언어학이론의 수용과 국어음운론 연구", 국어국문학과 구미이론, 지식산업사.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째매, 역대한국문법대계 1-43, 탑출판사.

_____(1937), 우리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1-47, 탑출판사.

한택동(1998), "주시경의 음운이론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 웅(1958), 국어음운론, 정음사.

_____(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槪說, 小倉進平博士 著作集 卷三, 京都大學 國文學會.

Kim, C.-W.(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Martin, S. E.(1952), "Korean phonemics", *Language* 27,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_____(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